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Flute 학습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나 영 아

Flute 학습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learning the Flute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Adolescents**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나 영 아

Flute 학습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혜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음악교육) 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나 영 아

나영아의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혜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플루트 학습.....	4
1) 플루트의 정의 및 종류.....	4
2) 학교 내 플루트 학습.....	6
3) 학교 내 플루트 앙상블.....	6
2. 감성 지능.....	9
1) 감성 지능의 등장 배경 및 정의.....	9
2)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10
3) 음악과 감성 지능.....	14
III. 조사 분석	15
1. 연구 대상.....	15
2. 연구 도구.....	16
3. 실험 절차.....	17
4. 자료 처리.....	17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8
V. 결론	21
참고 문헌	22
부록	24

표 목 차

<표 1> 플루트 앙상블.....	6
<표 2> 플루트 앙상블 보강 편성.....	7
<표 3> 플루트 앙상블 인원 수.....	7
<표 4>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와 내용.....	11
<표 5> 수정된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와 내용.....	12
<표 6> 감성 지능의 요소와 내용.....	13
<표 7> 연구 대상자 분포.....	15
<표 8> 검사 영역별 문항 분포.....	16
<표 9> 집단에 따른 자기 인식의 차이 비교.....	18
<표 10> 집단에 따른 감정 표현의 차이 비교.....	18
<표 11> 집단에 따른 감정 이입의 차이 비교.....	19
<표 12> 집단에 따른 자기 조절의 차이 비교.....	19
<표 13> 집단에 따른 감정 활용의 차이 비교.....	19
<표 14> 집단에 따른 감성 지능 검사의 차이 비교.....	20

그 립 목 차

[그림 1] 플루트의 종류.....	4
[그림 2]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10

ABSTRACT

The Influence of learning the Flute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Adolescents

Young-ah Na

Advisor : Prof. Hye-keong Kim. Ph.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like joy, anger, sorrow, and happiness in that music inspires human hearts. The relationship is very intimate since music can induce human feelings by changing the mood and the physiology.

Emotional intelligence is an ability to control emotions and feelings in contradiction to cognitive intelligence. It also can be said as an ability to control and motivate emotions of oneself and others and a capacity for social harmony to overcome agonies with hopes, cope with risks, and make personal relations smooth. E. Q. (Emotional Quotient) is the numerical value of emotional intelligence. Gardner is the person who defined that emotions involve intelligent abilities at first, and then Salovey and Mayer identified emotional intelligence with focus on handling of personal emotions.

This intimate relationship has been demonstrated by finding that music helps adolescents to improve self-perception, empathy, self-control, and emotional application when students who are learning the flute ensemble are compared with students who are not.

A published research in Europe presents that high-key-ranged music instruments are more helpful to develop children's intelligence than low-key-ranged instruments. Students could experience a new world that cannot be learned from music textbooks but from ensemble of flutes, which generally produce high-pitched and attractive sound. Student also would obtain valuable influences from the harmony and cooperative spirits experienced by playing different parts of a beautiful piece with one kind of instrum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Music)은 소리를 소재로 하여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해서 사상과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감성(Sensibility)은 이성(理性)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계의 대상을 오관(五官)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다.¹⁾

음악과 감성의 관계는 음악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喜 · 怒 · 哀 · 樂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은 음악을 통해 기분을 변화시키고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나 슬픔 등 인간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²⁾ 시기에 음악을 접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요즘 보편화 되고 있는 플루트를 배움으로써 악기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경험의 기초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음악 교육은 가창 지도 및 교과서에 집중된 음악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다. 플루트 앙상블 수업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사립 학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공립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재정적인 이유 등을 들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는 8년 이상 S초등학교에서 플루트 특기적성 교사로 근무하고 다수의 중 ·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플루트를 통한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 향상과 함께 풍부한 감정 표현력 발달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감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루트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있는 S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K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루트 앙상블 수업이 감성 지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박세원, 음악용어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3, pp423-425.

2) 정부가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하 초등과 중등을 청소년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2. 용어의 정의

1)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인지 지능(Intelligence)에 대비되는 말로써 감정과 느낌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³⁾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여 동기화시키고 조정하는 능력,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며 위험에 대처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조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은 동일한 I. Q.인 사람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대인 관계, 상황 대처 능력, 자기 조절력 등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지능에 대한 등장 배경과 개념만을 제한한다.

2) 감성 지수(Emotional quotient)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 살로비(P. Salovey)와 뉴햄프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 메이어(J. Mayer)가 이론화한 개념으로 감정적 지능 지수라고도 한다. 지능 지수(I. Q.)와는 질이 다른 지능으로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 저술가인 골맨(D. Goleman)이 저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 제시하면서 대중화되었다.⁴⁾ 본 연구에서는 감성 지수에 대한 요약과 함께 설문지를 통한 수치 분석으로 한정한다.

3)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s)

다중지능이론은 가드너(H. Gardner)가 주장한 개념으로 여기에서 지능의 개념은 특정 문화권 내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생성해 내는 능력,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⁵⁾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언어 능력, 논리 능력, 공간 이해 능력, 운동 능력, 음악 능력, 개인 간 능력, 개인 내 능력의 일곱 가지 지능 이론으로 함축하고 그 중 개인 간 능력과 개인 내 능력이 감성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합쳐 개인 능력이라 정의한다.

3) 김은아, 음악 교육이 EQ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p12.

4) 김경표, 관현악 활동이 아동의 정서지능(EQ)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7.

5) Gardner, H.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 Tenth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 Basic Books, 1993, p19.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S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K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플루트 특기적성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배우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하였으므로 다른 곳에서 연령이 같고 플루트 특기적성을 배우고 있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플루트 학습

1) 플루트의 정의 및 종류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음악은 소리의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요소들은 각기 독특한 음색을 나타내는 악기에 의해 개성 있는 여러 화음을 구사하는데 그 다양한 악기들 중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소프라노 플루트⁶⁾를 선택할 수 있다.

플루트는 목관 악기에 속하는 높은 음역의 악기로 원래는 ‘피리’란 뜻의 리드가 없는 관악기에 통용되고 입김을 피리의 취구에 불어넣어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기명 악기에 속한다.⁷⁾ 1830년에 뵘(T. Böhm ; 1794-1881)이 고안한 시스템을 원통형으로 바꿔 음정은 정확해지고 일반 사람의 손에 맞게 구멍의 위치와 크기를 확정하였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한 악기를 플루트로 사용하고 있다. 플루트의 종류에는 주로 배우는 플루트와 최고 음역을 낼 수 있는 피콜로를 비롯해서 저음을 내는 알토 플루트와 베이스 플루트가 있으며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플루트의 종류

6) 소프라노 플루트를 이하 플루트로 명시하였다.

7) 박세원, 음악용어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3, pp253-254.

위 그림의 악기들 중 플루트를 제외한 다른 악기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며 자주 접할 수 없으므로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피콜로(Piccolo)는 ‘작다’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어로 플라우토 피콜로(flauto piccolo), 블란서어로 삐띠뜨 플루트(petite flute), 독일어로 클라이네 플뢰테(Kleine Flöte)라 불린다. 크기는 플루트의 반 정도의 크기로 대략 32cm정도 되며 음역은 플루트보다 1옥타브 높고 이 음들은 날카롭고 화려하다. 오선 위에 보조선을 그어서 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나는 소리보다 1옥타브 아래로 음을 그린다.

알토 플루트(Alto Flute)는 플루트를 대형화한 것으로 이탈리아어로 플라우토 콘트라알토(flauto contralto), 블란서어로 풀루뜨 알뜨(flute alto), 독일어로 알트 플뢰테(Altflöte)라 불린다. 1854년에 뵘에 의해 개량된 악기로 플루트의 최저음보다 더 낮은 G음까지 소리 낼 수 있다. 구멍의 간격이 넓어 정교한 키(key)장치에 손가락이 닿도록 되어 있으며 음역은 G에서 위의 C² 까지며, 플루트보다 더 많은 호흡량을 필요로 하고 실제 음은 기보음보다 4도 낮아 이조악기로 취급된다.

베이스 플루트(Bass Flute)는 알토 플루트보다 더욱 확대된 형태로 이탈리아어로 플라우토 바소(flauto basso), 블란서어로 풀루뜨 바쓰(flute bass), 독일어로 바스 플뢰테(Bassflöte)로 불린다. 1930년~1940년대 사이 런던의 카르테(R. carte)에 의해 개량된 악기로 플루트보다 8도 아래로 조율 된다. 음역은 C에서 C²까지며 음색이 깊고 부드러우며 미묘하고 조용하다. 실제 음은 기보음보다 1음 높게 울려서 연주하고 이조악기로 취급된다. 악기의 구조는 C조의 경우 전체의 길이가 127cm에 이르기 때문에 윗 관과 이어지는 부분의 가운데관이 한 바퀴 둘러진 형태로 되어있으며 워낙 대형이어서 연주자의 호흡량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음 내기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체구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발달하여 시작하는 시기도 빨라져 이 시기에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취구가 구부러진 형태로 만들어진 플루트도 생산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각자 개개인이 간단한 동요 등을 습득함으로써 음악적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음악의 기초적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진급하여 플루트 앙상블 수업을 통해 협동심과 다양한 음악 세계를 접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되면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체구가 발달하므로 호흡이나 체력 면에서 초등학교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아진다.

학생들은 플루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에 매력을 느끼며 독주 악기가 한데 모여 아름다운 앙상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악기의 표현 영역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악기가 각자 다른 파트의 음을 내지만 결국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느껴지는 화합과 협동심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미학적 가치의 범주를 넓혀 나가게 된다. 플루트 연주는 감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 학생들은 감상을 통해 악기 연주 그 자체를 동경하게

되고 직접적인 악기 연주 경험을 통해 감상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로 인한 활동은 학습 전체에 생기를 불어 넣기도 한다.⁸⁾

2) 학교 내 플루트학습

교육부 고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 수업은 가창과 리듬 및 국악, 리코더 등의 교육 형태로 되어 있다. 현재 광주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플루트를 통한 방과 후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플루트 앙상블 수업을 통해 음악 교육을 하는 학교는 4~5개 학교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S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K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학교의 플루트 앙상블 수업은 플루트 선생님들의 재량 하에 주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학기 중 향상 음악회나 전국 대회 기간 전에 주 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2학기 중 종합 예술제나 학교 발표회 때에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학부모 공개 수업 때에는 각 반 교실에서 독주와 앙상블 연주를 중심으로 한 작은 음악회를 실시한다.

3) 학교 내 플루트 앙상블

플루트 앙상블 편성에는 악보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4성부로 나누고 있으며 그 기본 편성은 표1과 같다.

<표 1> 플루트 앙상블 편성표

성부	악기 파트
소프라노 성부(Soprano)	플루트(Flute) I
알토 성부(Alto)	플루트(Flute) II
테너 성부(Tenor)	플루트(Flute) III
베이스 성부(Bass)	플루트(Flute) IV

8) 이용일,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현대 음악 출판사, 1989, p26.

위의 편성에서 소프라노와 테너, 베이스 성부를 보강하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라노 성부에서는 피콜로를 보강한다.

둘째, 테너 성부에서는 알토 플루트를 보강한다.

셋째, 베이스 성부에서는 베이스 플루트를 보강한다.

그 예로써 다음과 같은 편성표를 볼 수 있는데 보충된 악기로 인해 더욱 풍부한 음색을 나타낼 수 있으며 표2와 같다.

<표 2> 플루트 앙상블 보강 편성표

성부	악기 파트
소프라노 성부(Soprano)	플루트(Flute) I , 피콜로(Piccolo)
알토 성부(Alto)	플루트(Flute) II
테너 성부(Tenor)	플루트(Flute) III, 알토 플루트(Alto Flute)
베이스 성부(Bass)	플루트(Flute) IV, 베이스 플루트(Bass Flute)

현재 S초등학교나 K중학교에서는 소프라노 성부에 피콜로를 보강하고 테너와 베이스 성부에 알토 플루트와 베이스 플루트 대신 플루트를 더 보강하고 있다.

광주 S초등학교와 K중학교에서의 플루트 앙상블 편성 및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면 표3과 같다.

<표 3> 플루트 앙상블 인원 수

악기 파트	인원 수
피콜로(Piccolo)	1명
플루트(Flute) I	4~5명
플루트(Flute) II	4~5명
플루트(Flute) III	5~6명
플루트(Flute) IV	5~6명

위와 같이 각 성부의 편성에는 맞지 않지만 그에 맞게 악보를 편곡하고 부족한 부분은 피아노나 타악기를 보강하여 S초등학교에서는 2008년도에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sch)과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등을 연주하고 있고 K중학교에서는 인터메조(Intermezzo)와 런던 트리오(London Trio No.1) 등을 연주하고 있다.

2. 감성 지능

1) 감성 지능의 등장 배경 및 정의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인지 지능(Intelligence)에 대비되는 말로써 감정과 느낌을 조절할 줄 하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여 동기화시키고 조정하는 능력,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며 위험에 대처하고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조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은 동일한 IQ인 사람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대인 관계, 상황 대처 능력, 자기 조절력 등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수치화 한 것이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 지수(Emotional Quotient ; E. Q.)이다.

감성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신 활동을 방해하는 반응으로써 비합리적이고 무질서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감성 지능에 함축되어 있는 감성은 구조화된 반응으로 흔히 내부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며 이때의 사건은 각 개인에게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유인가를 지닌다.⁹⁾

감성 지능의 연구 중 최초로 감성이 지적 기능을 갖는 다고 규정한 사람은 가드너(H. Gardner)이며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언어 능력, 논리 능력, 공간 이해 능력, 운동 능력, 음악 능력, 개인 간 능력, 개인 내 능력과 같은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 요인들 가운데 개인 간 능력과 개인 내 능력을 합쳐 개인 능력이라 불렀는데 이 능력은 감성적인 면은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 간 능력은 지도성, 인간관계 능력,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이 일하려는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동하며 일할 수 있는가를 잘 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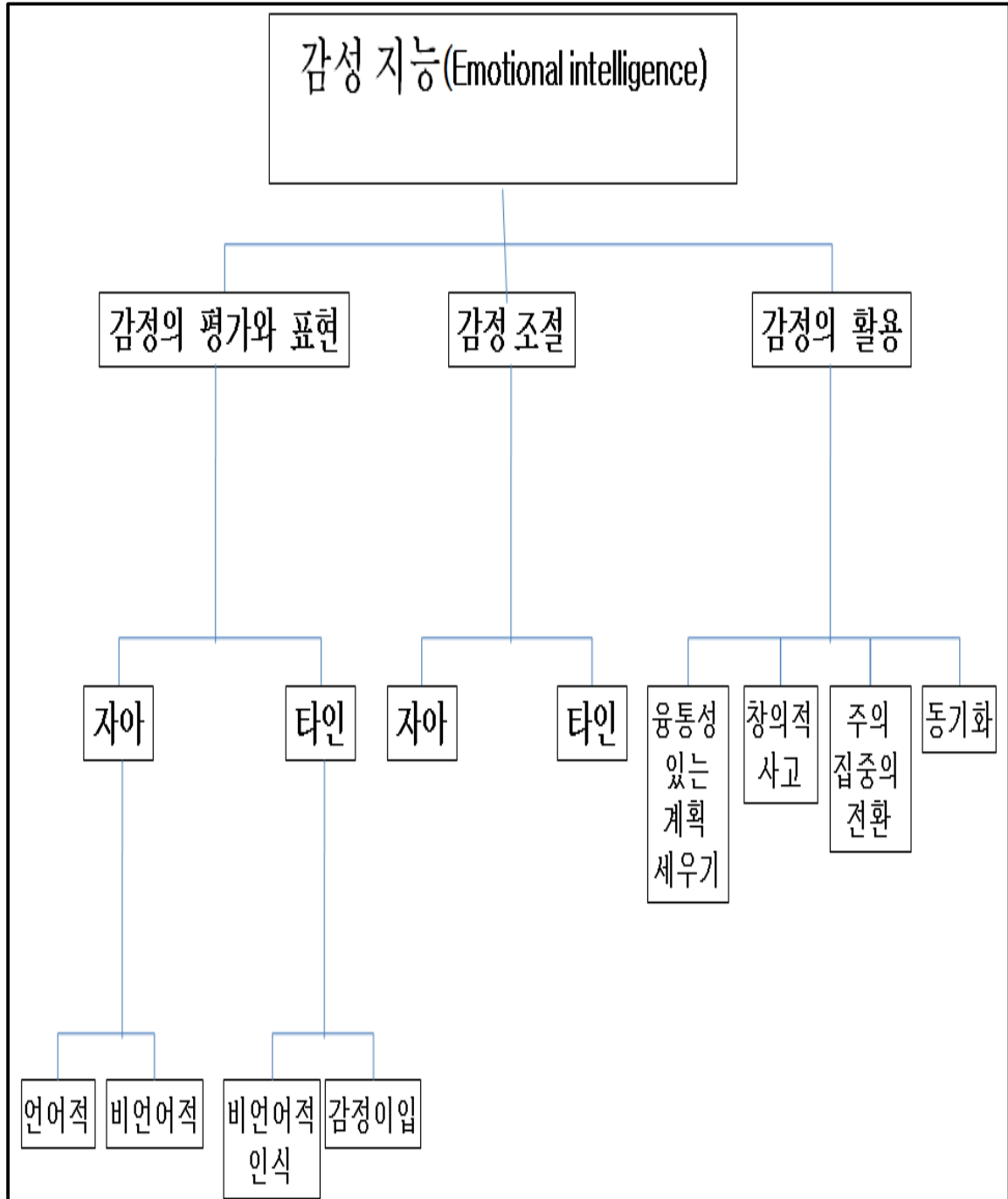
미국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인 살로비(P. Salovey)와 뉴 햄프셔 대학의 심리학자인 메이어(J. Mayer)는 개인의 감정 처리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인간 내적인 지능 혹은 인간 상호적 지능이란 용어 대신에 감성 지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보다 보편적인 관심거리로 등장 된 것은 E. Q.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감성 지능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인 골맨(D. Goleman)이 쓴 “감성 지능”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95년 10월에 시사 주간지인 TIME에 E. Q.에 대한 기사를 표지기사로 다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기 시작했다.¹⁰⁾

9) Mayer, J. & P.Salovey,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1997, pp245-247.

10) 배은주,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감성 지능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 p21.

2)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

살로비와 메이어는 감성 지능을 크게 감성의 평가와 표현, 감정의 조절 및 감성의 활용으로 3분하였으며 이 3대 요인 밑에 각각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그 모형은 아래 그림2와 같다.¹¹⁾



[그림 2]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Mayer & Salovey ; 1990)

11) 김현경 · 이지은 편저, EQ 감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음세대, p24.

위의 모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해 보면 표4와 같다.

<표 4>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와 내용

감정의 평가와 표현	자아	언어적	감정은 언어에 의해서 평가되고 표현된다.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	감성적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은 비언어적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 비언어적 신호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으로써 개인차를 알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사람이 타인의 감정도 잘 알아차린다.
	타인	비언어적	타인의 불쾌한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능력은 안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을 해석하는 것으로 개인차를 알 수 있다.
		감정이입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또한 타인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	자아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은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타인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으로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원활히 증진시키기 위해 타인과의 부정적인 대화는 억제하는 능력이다.	
감정의 활용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기분 전환을 통해 좌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으며 가능한 다양한 결과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사고	감정은 기억 속의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유목화 하여 창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주의 집중의 전환	부정적인 강함 감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성에 대해 의미를 두게 될 때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부터 벗어나 새롭고 더 중요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동기화	정서는 도전적인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며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 어려운 장애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활동을 지속시키도록 한다.	

또한 이들은 수정된 정의를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표5와 같다.

“감성 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감성을 이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12)

<표 5> 수정된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와 내용

감성적, 지적 성숙을 증진시키는 감정의 조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 개방적일 수 있는 능력	감정의 실용성에 따라 그 감정을 반사적으로 지속시키는 능력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가 얼마나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평가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 속의 정서를 다루는 능력
감정에 대한 이해와 분석 : 감성 지식의 활용			
감정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	감성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해하는 능력	감성간의 전환을 인식하는 능력
감정의 사고 촉진			
감성의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감성이 느낌과 관련된 판단과 기억을 통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활용 가능한 사실이다.	감성적인 기분 변화는 개인의 관점을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추진한다.	행복감이 들 때 귀납적인 추론과정과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것과 같이 감성적인 상태는 특정 문제의 접근을 차별적으로 촉진한다.
감정의 지각, 평가 및 표현			
자신의 감정 및 생각에 내포된 감성을 파악하는 능력	언어, 소리 및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내재되어 있는 감성을 파악하는 능력	감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런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	정확한 감정과 부정확한 감정을 변별해내고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

12) 김현경 · 이지은 편저, EQ 감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음세대, P25.

종합해 보자면 살로비와 메이어는 감성 지능이란 사회적 지능의 한 부분이며 인격 지능의 일부라고 보았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와 표현, 감정 조절,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감정의 사용이라는 점에서 모든 연구를 종합하여 체계화 시켰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골맨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고 다음 표6과 같다.

<표 6> 감성 지능의 요소와 내용 (Gloeman, 1995)

구성 요소	내 용
자기 인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으로 감성지능의 초석이 된다.
자기 조절	인식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 동기화	어려움을 참아내어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며 만족 지연과 낙관성 등을 말한다.
감정 이입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대인 관계 기술	인식한 타인의 감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적절한 감성 표현력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성 지능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오늘 날 다시 쟁점화 된 이유는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화 양상과 우리 사회의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측정되어지는 감성 지능은 지능 지수(I. Q.)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첫째,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둘째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목표 추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 넷째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 다섯째 집단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3) 음악과 감성 지능

알브레스(Ables)와 핵크(Haack)는 음악이란 기분을 변화시키고 긍정적 생각을 유발하여 감정의 경험을 촉발시키고 타인과 감정적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감각적 행동을 종합, 조절, 변형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 감정 유발은 개인으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 연상, 기억, 회상, 긴장과 이완, 행동의 변화 등 긍정적 기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¹³⁾

또한 유덕희(1983)는 음악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술 활동으로 아름다운 음악은 내면속의 안정을 가져오며 인간의 정신적인 면에 강한 감화력을 주는 요소가 있으므로 인간의 감정과 상관관계에 있고 인간성을 완성함에 있어서 중요하며 인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언급 했다.¹⁴⁾

위에서 언급된 말들을 종합 해본 결과 예술은 감각으로 향하는 측면과 정신, 혼으로 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역시 감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여러 원인에 의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노출 된 청소년들에게 플루트 연주와 앙상블 수업은 감성 지능의 향상과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 된다.

13) Ables, H. , Responses to music in D. A. Hodges,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L. A. : Kendai - Hunt, 1993, p126-127.

14) 유덕희, 아동 발달과 음악 교육, 서울 : 개문사, 1983, p32.

III. 조사 분석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집단 선정

정부는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 집단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동구에 위치한 S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북구에 위치한 K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S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총85명, K중학교에서는 1학년 총386명을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선정

S초등학교의 5학년 3개 반과 K중학교의 1학년 10개 반 중 플루트 특기적성 활동을 하고 있고 앙상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실험 집단으로 나머지 비 활동 학생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다음 표7과 같다.

<표 7> 연구 대상자 분포

집단 구분	연령		인원 수(명)	
	S초등학교	K중학교	S초등학교	K중학교
실험 집단	12세	14세	21명	11명
비교 집단	12세	14세	64명	375명
총계	85명(S초등학교), 386명(K중학교)			

2. 연구 도구

1) 감성 지능의 측정 영역과 도구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대교의 감성 지능 검사지인 E. Q. TEST로 검사하였고 이 설문지는 총 37문항으로 되어 있고 감성 요인 별 문항은 표8과 같다.

<표 8> 검사 영역별 문항 분포

영역	측정 요소	수	문항 분포
자기 인식	자신의 자기 인식 5문항 타인의 자기 인식 5문항	7	1, 2, 4, 5, 6, 7, 8번
감정 표현	감정 표현	6	3, 10, 11, 12, 17, 18번
감정 이입	감정 이입	7	9, 13, 14, 15, 16, 19, 20번
자기 조절	자신의 자기 조절 5문항 타인의 자기 조절 5문항	10	21, 22, 25, 26, 27, 28, 31, 32, 33, 34번
감정 활용	감정 활용	7	23, 24, 29, 30, 35, 36, 37번
계	37문항		

2) E. Q. 진단 검사 방법

- ① 학생이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 ②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사가 직접 가르쳐 주도록 하였다.
- ③ 감정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5문항(6, 10, 11, 13, 14번)은 부정으로 물어보는 문항이므로 그 반응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 ④ 감정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2개의 선택 사항 중에서 자신에게 더 가까운 번호에 답하도록 하였다.
- ⑤ 검사자의 학년과 이름 그리고 성별을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하였다.

3. 실험 절차

1) 감성 지능 검사

현재 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5학년 3개 반과 K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 10개 반을 표본으로 하여 이들의 감성 지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플루트 특기 적성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실험 집단으로 나머지 비 활동 학생을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 일정

현재 S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5학년 3개 반과 K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 10개 반의 담임선생님께 전화상으로 방문을 알린 후 특기 적성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의뢰하였다.

연구자는 선정 된 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5학년 3개 반, 총 85명과 K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 10개 반, 총 386명의 학생들을 각각 2008년 9월 5일에 감성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플루트 독주를 비롯한 앙상블 활동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감성 지능 점수를 산출하고 평균을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플루트 학습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루트 특기 적성을 받고 있는 실험 집단과 받고 있지 않은 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의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성 지능 검사지에 참여한 청소년은 실험 집단 32명과 비교 집단 439명, 총 47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성 지능 검사 항목은 자기 인식, 감정 표현, 감정 이입, 자기 조절, 감정 활용으로 구분된다.

집단의 구분에 따라 자기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청소년의 자기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표9와 같다.

<표 9> 집단에 따른 자기 인식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19.27	2.334
실험 집단	439	20.24	1.442

집단 구분에 따라 감정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표본간의 동질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집단에 따른 감정 표현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14.78	2.648
실험 집단	439	14.86	1.561

집단의 구분에 따라 감정 이입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청소년의 감정 이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집단에 따른 감정 이입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17.15	2.753
실험 집단	439	20.86	2.683

집단의 구분에 따라 자기 조절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청소년의 자기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표12와 같다.

<표 12> 집단에 따른 자기 조절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24.09	3.774
실험 집단	439	29.41	3.310

집단의 구분에 따라 감정 활용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청소년의 감정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표13과 같다.

<표 13> 집단에 따른 감정 활용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22.68	3.327
실험 집단	439	26.41	1.871

집단의 구분에 따라 감성 지능 검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다음 표14와 같다.

<표 14> 집단에 따른 감성 지능 검사의 차이 비교

집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비교 집단	32	94.68	9.327
실험 집단	439	109.41	7.871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플루트 독주를 비롯한 앙상블 학습을 통해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음악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감성 지능에 효과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인식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감성 지능 중 자기 인식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 표현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의 평균과 동질화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감성 지능 중 감정 표현 영역 발달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셋째, 감정 이입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감성 지능 중 감정 이입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자기 조절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감성 지능 중 자기 조절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감정 활용에 대한 집단에 따른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이 비교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플루트 활동이 감성 지능 중 감정 활용 영역 발달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플루트 앙상블 수업이 청소년의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며 이 중 자기 인식 능력, 감정 이입 능력, 자기 조절 능력, 감정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꾸준한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화합과 인내심 등 아동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를 확립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

유럽에서 실제 연구 발표 된 사례로 저음 음역의 악기를 하는 것 보다 고음 음역의 악기를 하는 청소년들의 지능이 훨씬 높다는 결과가 있다. 고음 음역에 속하는 플루트를 배우으로써 청소년의 지적 능력과 감성이 함께 발달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권덕원 외(2005). 음악 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성규 (1984). 유아 음악 세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김현경, 이지은 편저. EQ 감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다음세대.
- 나운영 (1981). 관현악 법.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박세원(1993). 음악 용어 사전.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안중배(1996).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유덕희(1983). 아동 발달과 음악 교육. 서울 : 개문사.
- 이용일(1989).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Ables, H. (1993). *Responses to music in D. A. Hodges*. Handbook of musicpsychology. L. A. : Kendai - Hunt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Mayer, J. & Salovey, P. (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논문

- 권희정 (1988). FLUTE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고찰 - Mechanism을 중심으로.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표 (2007). 관현악 활동이 아동의 정서지능(E. Q.)에 미치는 영향.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광주: 조선 대학교.
- 김은아 (2006). 음악 교육이 EQ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조선대학교.
- 김정 (2003). 음악 교육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조선대학교.

- 배은주 (1999).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감성 지능 비교 연구. 미 출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 이보숙 (2005). 음악 사교육 경험과 초등학생의 음악 성취도 및 음악 흥미도와와의 관계.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인천 : 경인교육대학교.
- 정현경 (2001). 아동기 음악 흥미도에 관한 조사 연구 - 유아기 음악 교육 有 · 無에 따른 아동기 음악 흥미도 조사를 중심으로. 미 출판 석사학위논문. 청주: 서원대학교.
- 최성경 (2002). 음악 교육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 출판 석사학위 논문. 익산 : 원광대학교.

(부록) 검사지

1. 나는 조회 때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오늘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6.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7.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8.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9.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0. 엄마가 나는 꼭 안아주실 때 나도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1.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2.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 그 친구를 위로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3.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4.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 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5. 어머니나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6.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 나도 야단맞는 것 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17.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8.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달려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9.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20.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 않다.

21.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2.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그런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3.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는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② 나는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24.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친구 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는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나는 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25.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6.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7.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9.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만 야단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도 잘못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②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30.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 ① 오늘 시험을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② 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 된다.

31.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3. 어머니(아버지)가 화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4.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5.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 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②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36.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헐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②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3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덥고 졸려서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음악교육	학번	20058079	과정	석사
성명	한글 : 나영아 한문 : 羅煥雅 영문 : NA YOUNG AH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103동 201호				
연락처	E-MAIL : 78clarins@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FLUTE학습이 청소년의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문 : The Influence of learning the Flute o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Adolesc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 년 2월

저작자 : 나영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